

이야기 3 :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주제말씀
[마태복음 19:1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유대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어린 아이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기 앞에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어린이들은 빨리 뛰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제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막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말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하세요. (마태복음 19:14)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활동 1.

하트를 꾸며보세요.

1. 글씨를 따라 쓴다.
2. 색종이를 손으로 찢는다. 혹은 오린다.
3. 하트 선을 따라 색종이를 붙인다.

우리는

친구



예수님

